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행사로 치른다

도, 준비 보고회...수출상담·투자설명회 통합 개최
재외동포 경제인 대상 관광 프로그램 등 준비 만전

오는 10월 여수에서 열리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투자유치 설명회’ 통합 개최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최대화하는 비즈니스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1일 오는 10월 22일부터 3일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의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에서 ‘대회준비단(TF)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전남도, 여수시 총 16개 T/F 부서와 대회 주최기관인 재외동포재단과 업무대행사인 ㈜마이스코리아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 대회 준비를 위한 분야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대회 행사장, 기업전시회장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

출상담회’와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합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와 ‘전국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대회’ 등 비즈니스 행사를 공동 개최기로 논의했다.

또한 전남지역 산업·역사·문화를 고려한 2박, 3박, 4박의 관광코스와 여수 낭만버스를 활용한 시티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회 전후 지역 관광을 계획한 재외동포들에게 전남 주요 관광지 정보를 사전에 별도 제공기로 했다.

여기에 숙박·음식점 위생 및 안전점검, 대회장 주변 환경 정비,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대회 홍보, 수송차량 등 지원계획을 꼼꼼히 마련해 방문객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컨벤션 시설 부족 등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전남과 여수의 경제 관광 자원과 역량을 국제무대에 보여줄 데없이 좋은 기회”라며 “도출된 아이디어와 기관별 협조 의견 등을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해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가장 성공한 대회로 기억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02년 시작된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1천여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한 곳에 모이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경제행사다.

/김재정기자

이낙연 총리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관계부처가 적극 도와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는 7월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권 판매가 20%로 저조하고 각계의 관심도 낮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회시설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세부적인 경기운영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해외관광객의 출입국과 교통, 테러 및 전염병 예방과 식품위생, 폭우와 폭염 등 기상 대비 등에 관계 부처가 최선을 다해 도와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 자리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인형들이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김진수기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인형을 자신들의 테이블 위에 놓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민·외국인 화합의 축제 ‘활짝’

26일 아시아문화전당서 ‘광주국제교류의 날’ 행사

광주 거주 외국인들과 시민들의 어울림 축제 한마당인 ‘제25회 광주국제교류의 날’ 행사가 26일 낮 12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광주국제교류의 날은 올해로 25년째를 맞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내·외국인 문화 교류행사로 해마다 2천여명이 넘는 시민과 외국인의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광주 외국인출입국

사무소 주관 ‘2019 세계인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돼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먼저 행사 하루 전인 25일 오후 4시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에서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안전과 인권, 인문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정 부시장은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정보들을 수준 높은 인문학 지식과 연계해 소개하며 청중들에게 유익함과 즐거움

을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인 26일에는 미국·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말레이시아 등 21개국 60개 단체가 참가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세계 음식과 음료를 맛보는 세계음식 체험부터 세계 전통놀이와 문화를 체험하는 세계문화체험, 국가별 전통공연, 외국인 지원기관 홍보부스 글로벌 커뮤니티 운영, 인스타그램 사진 인증, 경품추첨 등 시민과 외국인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놀이들이 마련된다.

또 아프리카의 문화와 산업을 배우고 아프리카에서 스타트업을 계획하는 기업가·청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프리카 카페’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글로벌라운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오전 10시부터는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5·18 특별투어’가 실시된다.

투어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자원활동가인 미국인 워렌 파슨스씨, 김도원 5·18문화해설사와 함께 5·18기록관부터 전일빌딩, 구 전남도청을 둘러보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 참가비는 무료로 23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최권범기자

“11대 대표산업 육성 미래 허브도시로”

광주시, 유관기관장 회의...협력체계 구축 모색

광주시는 21일 11대 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12개 유관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7기 산업비전과 11대 대표산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산업별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전남본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본부 등 회의에 참가한 12개 기관은 기업과 일자리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성과분석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역 및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연구장비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 성과관리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12개 기관은 민선7기 산업정책에 맞춰 지역과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R&D) 지원을 강화하는 공동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공동협약이 추진되면 앞으로 각 기관은 특화된 기능에 따라 전담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광융합산업은 한국광기술원과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드론산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가, 수소경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가 전담하게 된다.

이병훈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1대 산업을 통해 광주는 미래산업의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1대 대표산업은 ▲친환경자동차산업 ▲에너지 및 공기산업 ▲광융합산업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스마트푸드산업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 ▲5세대이동통신(5G)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감치 및 음식산업 등이다.

/최권범기자

광주도시공사-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시민안전·건설기술 혁신’ 업무협약

광주도시공사(사장 김기현)는 21일 (사)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와 시민안전 및 건설기술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교육훈련 지원 등 시민중심 복지구현을 추진하고, 정보교류 및 정책 자문 등 건설기술 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각 기관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기술 신공법,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등 연구개발,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노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경수 공사 사장은 “광주의 대표공기업과 대한토목학회의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상생발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이바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市, 오는 28일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

광주시는 오는 28일 남구 백운광장 일원(옛 보훈병원 부지)에서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자연재난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2019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을 실시한다.

풍·수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방제 등 대응능력과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5개 자치구, 광주지방경찰청, 소방안전본부, 지역자율방재단 등 10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백운동 지역 집중호우 침수피해와 같은 자연재난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을 키우는 점을 중점에 두고 대응책을 토의하는 토론기반훈련과

재난상황을 수습하는 현장훈련으로 병행 추진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장비를 활용해 재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송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피해 현장 간 피해상황 및 수습상황을 입체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천과 같은 현장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완벽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애플비데

물탱크가 없는
직수형 순간온수

3년 안에 고장 나면
수리비를 받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3년

가정의 달 특별 할인 행사

APPLE-848모델 : ~~359,000~~ ▶ 220,000원

APPLE-868모델 : ~~389,000~~ ▶ 240,000원

물탱크가 없는 직수형 순간온수 비데 (3년 무상 A/S)

금호비데 금호월드 3층 308호
구매상담 062-350-8871